

지평 그림책 시리즈 2

왕자의 독이 든 잔

글 R. C. 스프롤 | 그림 저스틴 제라드 | 옮김 이태복·이시은



작은 마을 어느 아늑한 집에 몸이 아픈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의 이름은 엘라 룿이었어요. 가족들은 소녀를 ‘엘라’라고 불렀지요.

배가 몹시 아픈 엘라에게 의사는 약을 주었어요. 엘라의 아빠는 약을 숟가락에 따랐어요. 하지만 약을 보자마자 엘라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 약은 정말 맛이 없어 보여요. 꼭 먹어야 하나요?”

엘라의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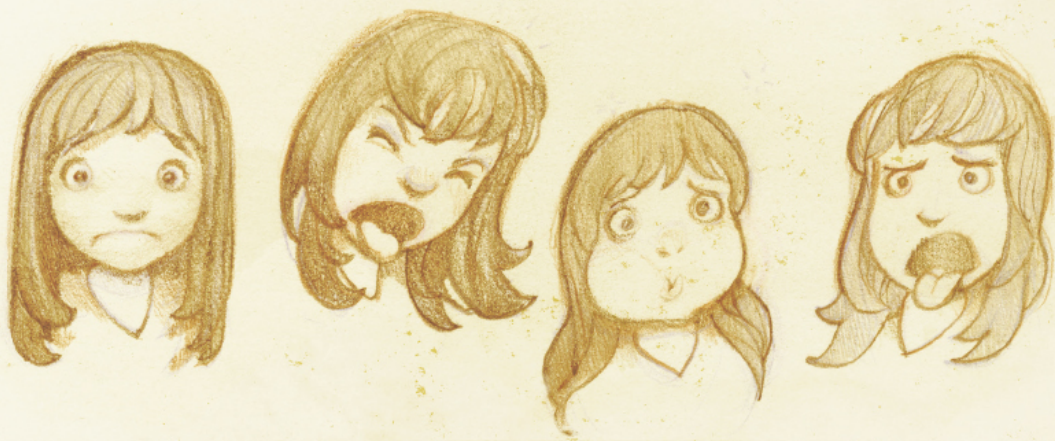
“그럼, 꼭 먹어야지. 그래야 빨리 낫는단다.”

엘라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약을 다 먹었어요. 하지만 약을 다 먹은 엘라는 아빠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빠, 약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 여쭙 보렴. 할아버지는 무슨 질문에든 척척 대답해 주시니까. 오늘 오후에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신단다. 가서 쉬고 있거라. 좀 나아진 상태로 할아버지를 만나면 더 좋겠지?”





엘라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께서 벌써 집에 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엘라를 안아 주시면서 어떻게 물어셨어요. 엘라는 아침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께 여쭙 보았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거 여쭙 봐도 돼요?”

“물론이지.”

“할아버지, 약은 몸에 좋은 거라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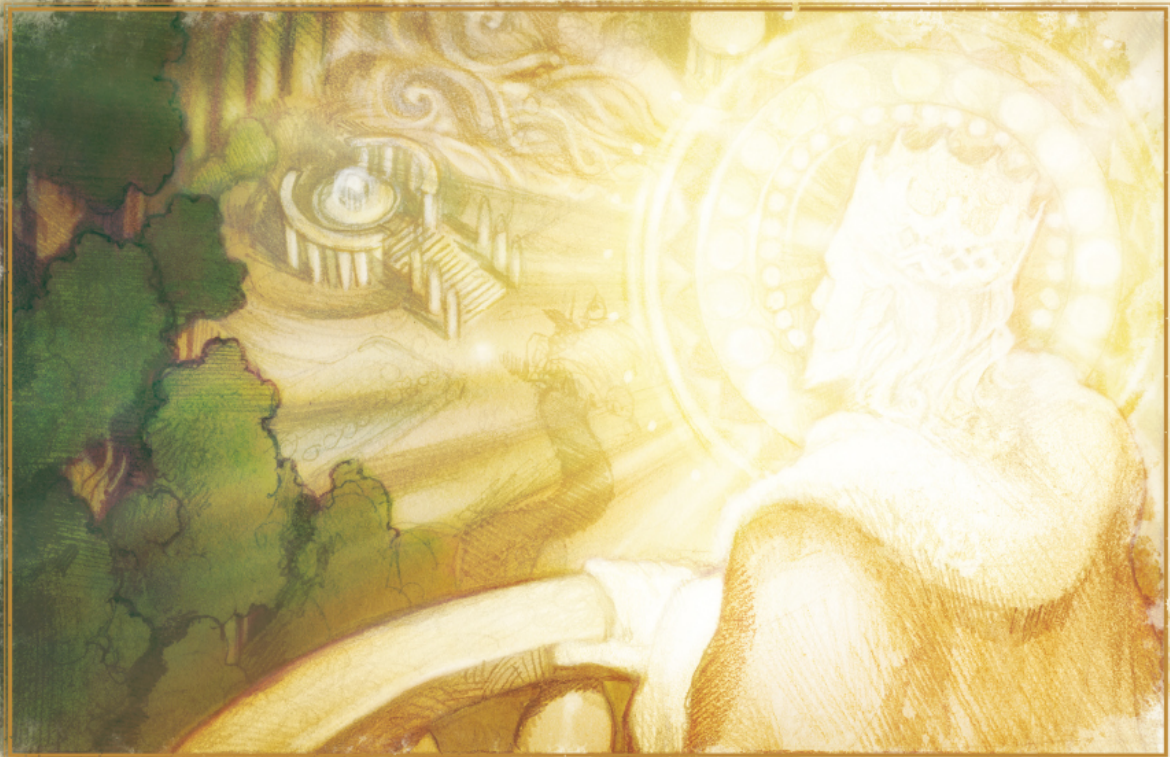
“참 좋은 질문이구나. 어떤 것들은 멋지게 보이고 맛도 좋고 냄새도 좋지만 우리 몸에 아주 나쁘단다. 반대로 어떤 것들은 안 좋게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듣고 싶니?”

“그럼요! 듣고 싶어요!”

엘라가 대답했어요. 엘라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 엘라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았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옛날에 위대한 왕이 살았단다. 사람들은 그 왕을 생명의 왕이라고 불렀지. 왜냐하면 그 왕에게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 왕은 식물과 동물, 사람처럼 살아 있는 것도 만들었어.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온갖 나무들과 아름다운 호수와 풀밭이 펼쳐진 멋진 공원을 만들었지. 왕은 날마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공원에 와서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만났어. 왕과 신하들은 아름다운 공원을 함께 거닐면서 매우 행복해했단다.

왕은 그 공원의 한복판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어. 그 분수대에서는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물이 솟아 올랐지. 하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말했단다. “공원에 있는 모든 시냇물의 물은 마셔도 되지만 이 분수대의 물은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이 분수대의 물은 해로운 물이니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백성들은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처음에는 분수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다. 백성들은 모두 왕을 존경했고, 왕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아주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는 분수대의 물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

그러던 어느 날, 길고 검은 외투를 입은 낯선 사람이 공원에 나타났어. 그 사람은 왕을 미워하는 원수였지. 그러나 왕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다. 낯선 사람은 분수대의 물이 전혀 해롭지 않다고 떠들어댔어. 분수대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지. 낯선 사람은 분수대의 물을 마시면 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분수대의 물을 마시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분수대의 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왕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셔 보기로 했어.

낯선 사람이 분수대의 물을 잔에 담아 왕의 백성들에게 주었어. 그리고 왕의 백성들은 그 물을 받아 마셨단다.



그런데 물을 마시자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단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지. 왕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도 다 사라져 버렸어.



눈과 귀에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다가 죽음의 절망에 던져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왕자의 이야기!

“어떤 것들은 멋지게 보이고 맛도 좋고 냄새도 좋지만 우리에게 아주 나쁘단다.

반대로 어떤 것들은 안 좋게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신학자요 목사며 저자인 R. C. 스프롤 박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심오한 개념들을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이 라는 큰 희생을 무릅쓰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한 잔을 기꺼이 마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어린이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위대한 결과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스틴 제라드가 그린 값진 그림들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질문들과 성경 구절들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위대한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788964 970355

ISBN 978-89-6497-035-5
ISBN 978-89-6497-033-1(세트)

값 9,000원